

남미 파라과이에서
이태호 김미순 선교사 가정 선교소식

f 학교: El Colegio Centro Educativo Reformado f 교회: La Iglesia La Gloria del Señor

선교현금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14704-970 KPM (이태호)



주안에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선교지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않고 계속됨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기도, 사랑,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라과이 상황>

이곳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지만 1,2년전과 비교해서는 훨씬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세계랭킹 상위권에 속해 있는 이 나라인지라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낙천적으로, 운명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코로나 예방 접종 3차까지 주사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라과이 선교지역 협력 노회인 "경남중부노회"에서 파라과이 선교사들을 위해 "산소발생기"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곳 선교지의 상황을 아시고 때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 선교사역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협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마음을 전합니다.

<학교소식>

2021 년도 학교관련 모든 학사일정들을 주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을 격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지금은 방학기간이라서 방학기간동안 학교단장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부터 학교등록을 시작합니다. 천국가신 김진호선교사님을 통해 시작한 학교사역이 올해 21 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사역을 할 때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은 저를 더 낮아지게 해주었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며, 이 학교가 주님의 학교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학교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2022 년도를 함께할 현지인 교사들이 다 채워지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며, 올 한해도 학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고 전체 학생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소식>

주영광 현지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숫적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10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지 교회사역 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라는 절대목표아래, 올해는 " 화평케하는 자가 되자!" 라는 일년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년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지금에서야 교회성도들이 저의 영적 형제, 자매, 영적 자녀들 처럼 그전 보다 깊이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록 외모, 언어,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신뢰하며 함께 교회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 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집에서 직접 구운 빵을 가져오고, 집에 심은 과일나무에서 과일열매를 가지고 오고, 목사님 사모님 힘들다며 날을 정해 교회에 와서 땀흘리며 청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 "선교"가 아닌 "목회"의 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곳 현지인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선교의 교훈은 교회의 숫적 성장은 두번째, 세번째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성도들과 비록 더디더라도 말씀 가운데 천천히 함께, 연합과 화목가운데 지내면, 교회가 조금씩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영광 현지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소식>

아시다시피 아들 이영광 전도사와 딸 크리스티나를 한국에 보내고 저와 제 아내 둘만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매일 매일 사역으로 인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전 보다 건강에 더 신경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지역에 사시는 한인의사 한분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몇달 전 앓았던 구안와사 및 지내달 한달 넘게 고생하던 알레르기도 이 한인의사 분의 도움으로 빨리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영광 전도사는 변함없이 열심히 학교와 교회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신대원 2 학년에 올라갑니다. 교회사역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 선교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영광이가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군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 크리스티나도 이모택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섬기는 교회의 보조반주자로 봉사하게 되어 저와 제 아내는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딸 크리스티나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약한 저희 가정을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곳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이태호 김미순 드림

<기도제목>

1.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모든 사역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3. 세르(CER) 미션스쿨 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가 바르게 성장케 하소서.
4. "주영광 현지인 교회"의 예배 가운데 영적 부흥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5. 2022년도에도 많은 학생들이 등록되게 하소서.
6. 학교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준비된 말씀들이 되게 하소서
7. 세르(CER) 미션스쿨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8. 학교, 교회, 가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소서
9. 이태호선교사가 바른 리더십, 영적 분별력, 영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령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10. 김미순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여종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소서
11. 이영광, 이크리스티나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소서
12. 선교를 준비 중인 김종윤, 전영광, 이선영, 주찬미를 축복하소서
13. 김진호선교사님의 세자녀들(영대, 영은, 영실)을 축복하소서
14. 이곳 사역을 이어받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임선교사를 보내주소서